

한국, 석유 과소비 여전하다!

석유협회, 2004년 세계 소비비중 2.8%로 7위 ... 일본은 감소

한국의 석유 과소비 현상이 여전해 경제규모에 비해 세계 소비점유율이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.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, 2004년 세계 석유 소비는 875만7000b/d로 전년대비 3.4% 증가해 1978년 이래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.

석유 소비비중은 미국이 전체의 24.9%를 점유해 1위를 차지했고 중국(8.2%), 일본(6.4%), 러시아연방(3.4%), 독일(3.3%), 인디아(3.2%), 한국(2.8%) 순이다.

석유 소비 증가량은 중국이 전년대비 무려 15.8%인 246만3000b/d 증가했고 미국은 2.8%인 48만4000b/d 증가한 반면, 일본은 3.0%인 16만7000b/d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246만7000b/d 증가했다.

세계 석유 소비량 순위(2004) (단위: 1000b/d)

순위	국 가	소비량	비 중
1	미 국	20,517	25.4
2	중 국	6,684	8.3
3	일 본	5,288	6.5
4	독 일	2,625	3.3
5	러시아	2,574	3.2
6	인디아	2,555	3.2
7	한 국	2,280	2.8
8	캐나다	2,206	2.7
9	프랑스	1,975	2.4
10	멕시코	1,896	2.3
11	이태리	1,871	2.3
12	브라질	1,830	2.3
13	영 국	1,756	2.2
14	사우디	1,728	2.1
15	스페인	1,593	2.0
세 계		80,757	100.0

세계 석유 정제능력 순위(2004) (단위: 1000b/d)

순위	국 가	정제능력	비 중
1	미 국	17,042	20.1
2	중 국	5,818	6.9
3	러시아	5,412	6.4
4	일 본	4,531	5.4
5	한 국	2,598	3.1
6	인디아	2,513	3.0
7	독 일	2,314	2.7
8	이태리	2,294	2.7
9	사우디	2,061	2.4
10	프랑스	1,977	2.3
11	캐나다	1,954	2.3
12	브라질	1,940	2.3
13	영 국	1,819	2.1
14	이 란	1,624	1.9
15	멕시코	1,463	1.7
세 계		84,592	100.0

세계 석유 생산량은 8026만b/d로 4.5% 증가했고 생산량 순으로는 사우디가 전체의 13.1%를 점유해 1위를, 러시아연방(11.9%), 미국(8.5%), 이란(5.2%), 멕시코(4.9%), 중국(4.5%) 순으로 나타났다.

세계 석유 매장량은 1조1886억배럴로 가채년수는 40.5년이며 국가별로는 사우디가 전체의 22.1%로 1위를 차지했고 이란(11.1%), 이라크(9.7%), 쿠웨이트(8.3%), UAE(8.2%), 베네주엘라(6.5%), 러시아연방(6.1%) 순을 기록했다.

한편, 세계 석유정제능력은 8459만2000b/d로 0.8% 증가했는데, 미국이 전체의 20.1%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국(6.9%), 러시아연방(6.4%), 일본(5.4%), 한국(3.1%) 순으로 나타났다.

<화학저널 2005/10/10>